

나스닥, 엔비디아의 힘으로 AI 관련 종목군 중심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엔비디아의 힘으로 나스닥 강세 Vs. 부채한도 협상 불안으로 다우지수 하락

•미 증시는 엔비디아(+24.37%)가 크게 상향된 가이던스 발표에 힘입어 급등하자 나스닥이 상승. 그러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파로 다우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로 출발. 장 초반 이 영향으로 AI관련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종목이 심리 위축 속 하락하는 차별화 진행. 더불어 독일의 GDP성장률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에 돌입한 점도 부담. 그런 가운데 장 후반 바이든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 긍정적인 발언으로 다우도 장중 한 때 반등하기도 했으나 제한적인 모습(다우 -0.11%, 나스닥 +1.71%, S&P500 +0.88%, 러셀2000 -0.70%)

특징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81%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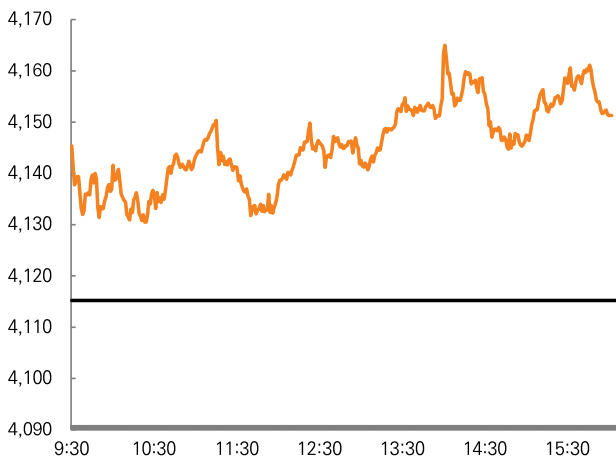
•엔비디아(+24.37%)는 견고한 실적과 특히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에 근접. 더불어 일부 투자회사들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급등 원인. 다만 시총이 1조 달러에 근접하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 일부 축소. 한편, 엔비디아 급등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대로 MS(+3.85%)와 알파벳(+2.13%), AMD(+11.16%)와 마이크론(+4.63%) 등이 강세.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1% 급등. 글로벌X 로보틱스 및 AI ETF(BOTZ)도 3.02% 상승. 반면, 인텔(-5.52%)은 신제품 출시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급락. 클라우드 관련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16.50%)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급락

한국 증시 전망: 연휴 앞두고 관망 속 개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48%, MSCI 신흥 지수 ETF는 0.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9.2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9% 상승. KOSPI는 보합 출발 예상.

•미 증시에서 AI 관련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부채한도 협상 관련 바이든 미 대통령 등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협상이 결국 디폴트 우려를 자극한 점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독일의 기술적 경기 침체 돌입 등 각국의 경기 위축 우려도 부담. 그럼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라는 백악관의 발표는 결국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매물은 출회되었지만, 연휴를 앞두고 한국 증시는 보합 출발 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전일과 같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554.69	-0.50	상해종합	3,201.26	-0.11
KOSDAQ	847.72	-0.90	홍콩항생	18,746.92	-1.93
DOW	32,764.65	-0.11	베트남	1,064.63	+0.27
NASDAQ	12,698.09	+1.71	유로스톡스 50	4,269.64	+0.14
S&P 500	4,151.28	+0.88	영국	7,570.87	-0.74
캐나다	19,774.08	-0.77	독일	15,793.80	-0.31
일본	30,801.13	+0.39	프랑스	7,229.27	-0.3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엔비디아 급등과 의미 ② 부채한도 협상

엔비디아(+24.37%)가 예상했던 실적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내놓으며 급등. 특히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는 13%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9% 개선되며 기다려왔던 칩 제조업체의 회복을 보여줌. 물론, 이익 또한 크게 개선. 그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분기 가이드언스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추정.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액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11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무려 51% 넘게 증가된 수치. 특히 AI 산업으로 데이터센터 향 수요가 견고할 전망이다며 하반기에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한 것.

여기에서 시장은 AI 산업의 발전이 생각보다 빠르고 기업들의 매출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실제 생성형 AI 관련 대형 기술주인 MS(+3.85%)와 알파벳(+2.13%), 메타플랫폼(+1.40%)은 물론, AMD(+11.16%)를 비롯해 AMAT(+7.15%), 마이크론(+4.63%)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의 강세가 뚜렷.

그렇지만, 일부 AI 관련주는 제한적인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등 모든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님. 여기에 인텔(-5.52%)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크게 하락하는 차별화를 보임. AI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쟁업체에 비해 인텔의 제품 개발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는 시장 참여자들은 AI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 실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맺은 서비스 나우(+5.82%)는 강세를 보였으나 세일즈포스(+0.41%) 등 같은 업종내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대응 속도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별 기업들은 AI에 산업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 관련 보고서와 영상 참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 AI가 불러온 新산업 혁명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105070.pdf?attachmentId=2105070>

영상: 유튜브 스마트머니: <https://www.youtube.com/c/SmartMoney0>

신용평가사 피치는 부채한도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마찰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무디스 또한 유지하지만 디폴트 위험이 확대될 경우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경고. 특히 무디스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실업률 급증과 증시 급락 등 급격한 경제적인 영향을 언급.

그런 가운데 이날 백악관이 정부는 생산적인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재정지출 감축이 논쟁의 주요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 이와 함께 실무진은 현지시각 오전 11시 30분에 만나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협상에 대한 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실제 이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디폴트는 없을 것이며 매키시 의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언급하며 2년동안 지출을 동결하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발표.

물론, 미 재무부가 부채한도 마감 일 이후 지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전히 불안 심리는 이어감. 이런 가운데 매카시 하원의장 또한 부채한도 실무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하며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경향.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 이후 다우지수도 한때 상승 전환하는 힘을 보이기도 했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81% 급등

엔비디아(+24.37%)는 견고한 실적과 특히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에 근접. 더불어 일부 투자회사들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급등 원인. 다만 시총이 1조 달러에 근접하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 일부 축소. 한편, 엔비디아 급등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대로 MS(+3.85%)와 알파벳(+2.13%)이 상승했으며 AMD(+11.16%)와 마이크론(+4.63%) 등 반도체 업종의 강세도 뚜렷.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1% 급등. 글로벌X 로보틱스 및 AI ETF(BOTZ)도 3.02% 상승

더불어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은 서비스나우(+5.82%)도 강세를 보임. 오라클(+6.07%)과 어도비(+7.19%)도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강세. 특히 포토샵에 AI가 도입돼 매출 확대 기대가 부각된 어도비의 강세가 뚜렷.

반면, 인텔(-5.52%)은 신제품 출시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급락. 클라우드 관련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16.50%)는 부진한 실적 발표와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급락. 소매업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11.93%)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달러트리(-12.03%)도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 후 급락. 타겟(-1.64), 달러제너럴(-2.51%)도 동반 하락. 의류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4.51%)는 견조한 실적 발표에도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69	대형 가치주 ETF (IVE)	+0.04
클린테크 ETF (CTEC)	-0.28	중형 가치주 ETF (IWS)	-0.29
소매업체 ETF (XLY)	-0.45	소형 가치주 ETF (IWN)	-0.85
온라인소매 ETF (EBIZ)	-1.74	대형 성장주 ETF (VUG)	+1.87
미국 인프라 ETF (PAVE)	+0.95	중형 성장주 ETF (IWP)	+0.49
핀테크 ETF (FINX)	-0.83	소형 성장주 ETF (IWO)	-0.5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50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2
클라우드 ETF (CLOU)	-0.4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06
사이버보안 ETF (BUG)	+0.43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22	미국 국채 ETF (IEF)	-0.6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01	하이일드 ETF (JNK)	-0.10
바이오섹터 ETF (IBB)	-1.89	신흥국 채권 ETF (EMBD)	-0.44
로봇&AI ETF (BOTZ)	+3.02	물가연동채 ETF (TIP)	-0.45
반도체 ETF (SMH)	+8.6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834.06	+4.45	+2.26	+12.36
커뮤니케이션	207.37	+0.43	-0.99	+10.23
산업재	824.03	+0.30	-2.45	-1.63
부동산	221.10	+0.28	-2.69	-4.03
금융	528.46	-0.05	-2.79	-2.42
소재	477.22	-0.38	-3.30	-4.67
경기소비재	1,162.34	-0.52	-2.79	+3.22
필수소비재	762.16	-0.77	-3.54	-4.84
헬스케어	1,486.30	-1.04	-2.32	-4.53
유틸리티	326.45	-1.38	-2.47	-8.09
에너지	604.77	-1.89	-0.02	-7.1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연휴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48%, MSCI 신흥 지수 ETF는 0.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9.2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9% 상승. KOSPI는 보합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강력한 분기 전망 발표로 시간외로 급등하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여전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불안 심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 특히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자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담. 한편, 외국인은 이날 2,244억을 순매수했지만 대부분 반도체 업종이며 이를 제외하면 매도해 증시에 부담 작용. 이 여파로 KOSPI는 0.50%, KOSDAQ은 0.90%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급등하며 AI 관련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여타 종목 대부분은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부채한도 협상 관련 바이든 미 대통령 등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협상이 결국 디폴트 우려를 자극한 점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6.81% 급등했으나, 이는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되며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부담. 특히 지난 2011년과 달리 현재는 주식시장에 부채한도 협상 불안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독일의 기술적 경기 침체 돌입 등 각국의 경기 위축 우려도 부담

그럼에도 미 재무부가 지불을 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라는 백악관과 바이든의 발표 등은 결국 우려와 달리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매물은 출회되겠지만, 연휴를 앞두고 한국 증시는 보합 출발 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전일과 같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미국 1분기 GDP 잠정치는 지난 속보치인 1.1%에서 상향된 1.3%로 발표. 특히 개인 소비지출이 3.7%에서 3.8%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민간투자도 12.5% 감소에서 11.5% 감소로 조정. 국내 총 소득 GDP는 -2.3%로 발표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임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22.5만 건에서 22.9만 건으로 증가했으나 예상했던 24.8만 건을 하회. 4주 평균은 23만 1,750건을 유지

4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0.37에서 개선된 +0.07로 발표. 특히 생산 및 소득이 크게 개선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미국 4월 잠정 주택판매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5.2% 감소를 뒤로하고 유지함. 그렇지만 예상했던 1.1% 증가보다는 둔화

독일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분기 -0.4%에 어이 -0.3%로 발표돼 경기침체에 돌입



CME, 6월 금리인상 확률 53%로 상향 조정

국제유가는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이 하락에 배팅한 헤지펀드에 경고하며 강세를 이어왔었음. 특히 이러한 발언은 OPEC+ 추가 감산 가능성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러시아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추가 감산 기대가 약화되며 하락. 더불어 독일 GDP 성장률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로의 전환이 진행되자 수요 부진 우려도 영향. 이는 미국과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급락을 불러옴

달러화는 독일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0.4%에 이어 -0.3%를 기록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파운드화도 영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폭을 키운 가운데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등 상품과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부채한도 협상 불안이 확대되자 상승. 여기에 GDP성장률의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지표가 견고한 점도 상승 요인. 특히 이러한 경제지표가 견고함을 보이자 CME FEDWatch에서는 6월 금리인상 확률이 53%를 기록하자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 한편,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2배를 상회한 2.61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았으나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화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독일 경기 침체 우려 속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며 하락. 곡물은 달러 강세와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줬으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가 이어지며 강보합권 등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7%, 철근은 0.4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1.83	-3.36	-0.14	Dollar Index	104.238	+0.34	+0.63
브렌트유	76.26	-2.92	+0.28	EUR/USD	1.0725	-0.23	-0.42
천연가스	2.31	-4.34	-11.50	USD/JPY	140.05	+0.42	+0.97
금	1,962.30	-1.21	-0.97	GBP/USD	1.2321	-0.36	-0.71
은	22.91	-1.74	-3.38	USD/CHF	0.9058	+0.10	+0.07
알루미늄	2,231.00	+1.18	-2.30	AUD/USD	0.6504	-0.61	-1.78
전기동	7,962.50	+0.77	-2.57	USD/CAD	1.3643	+0.35	+1.04
아연	2,272.00	-1.77	-7.60	USD/RUB	80.0379	-0.51	-0.44
옥수수	590.75	+0.68	+6.48	USD/BRL	5.0412	+1.63	+1.53
밀	604.25	0.00	-0.90	USD/CNH	7.0909	+0.35	+0.58
대두	1,324.00	+0.13	-0.53	USD/KRW	1,326.00	+0.65	-0.61
커피	182.70	-2.82	-2.12	USD/KRW NDF1M	1,329.24	+0.88	-0.3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821	+7.93	+17.55	스페인	3.591	+5.50	+7.90
한국	3.595	+8.80	+23.60	포르투갈	3.281	+4.50	+3.20
일본	0.427	+1.30	+4.50	그리스	3.906	+0.70	-13.50
독일	2.522	+5.00	+7.60	이탈리아	4.398	+6.00	+8.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